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월력

10월 19일(수) / DR콩고 DR CONGO

지난 7월부터 콩고 내 보가(Boga)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에 의한 살인 및 방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만 최소 17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했으며, 여러 교회들이 불에 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주로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20일(목) / 오만 OMAN

오만에는 소수 부족들로 이루어진 작은 부족 마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 부족 중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독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부족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조차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 부족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빨리 만들어져서 부족민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번역된 성경을 통해 부조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21일(금) / 인도네시아 INDONESIA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지역의 교회 3 곳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6세의 에블린(Evelyn,가명)은 당시 폭발로 심한 화상을 입어 지금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상흉터로 인해 낮아진 그녀의 자존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흉터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궁금증, 동정의 말들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늘 흉터를 가리고 다닙니다. 크리스천 지체들을 통해 동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그녀에게 전달되어 그녀의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22일(토) / 방글라데시 BANGLADESH

하니프(Hanif,가명)는 방글라데시의 비밀 기독교인으로 얼마 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니프를 심하게 구타하고 박해했던 무슬림 가족들이 그의 세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니프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타와 박해로 부상을 입은 하니프 형제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박해가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0월 23일(일) / 스리랑카 SRI LANKA

스리랑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식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일반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만큼 심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원료 부족과 식량부족은 오픈도어사역과 지역 교회들

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현지 파트너 교회들과의 소통의 장벽과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과 필요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픈도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24일(월) / 부탄 BHUTAN

소남(Sonam,가명) 자매는 기독교 신앙때문에 이혼당하여 두명의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그녀의 가족 중 그녀가 유일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소남 자매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남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함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녀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25일(화) / 베트남 VIETNAM

리엠(가명)과 하오(가명)는 새신자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중 정부 당국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리엠과 하오 형제를 이틀 동안 구금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혜택을 박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새신자가 된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독교 탄압으로 두려움에 떨고 위축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합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26일(수) /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중앙아시아는 주로 이슬람 문화와 법체계가 지배적인 국가들이 많아서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지역 정부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비밀리에 기독교 모임을 갖는 기독교인들은 정부 법에 의해 직접적인 탄압을 당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비밀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비밀신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이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0월 27일(목)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기독교에 대한 감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경찰들의 감시 카메라가 교회건물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감시에 기독교인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주셔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려움을 주는 우즈베키스탄 사회가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10월 28일(금) / 남부 필리핀 SOUTHERN PHILIPPINES

아시아(Asia,가명)자매는 자신이 속한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것을 반기지 않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 자매는 천천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월 15명의

사람들과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녀가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부족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29일(토)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아프니스탄 이웃 국가에서 난민이되어 살고 있는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해 수레를 밀고 끌어주는 등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난민촌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아프가니스탄 내에 남아서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생사를 확인하며 소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촌과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이 조속히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0월 30일(일)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지 1년이 넘는 지금, 아프간 땅에 소수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물리적 폭력과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차별을 겪어야만합니다. 아프간 땅에 남아 비밀리에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비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교회와 함께하시며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31일(월) / 콜롬비아 COLOMBIA

콜롬비아 기독교인들은 10월31일을 성경의 날로 기념합니다. 성경 연구와 교육에 힘을 실었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과 단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안에서 연합하여 청년/청소년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박해가 심한 지역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진행되는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기도월력을 신청하세요! 기도회에서 나누시도록 원하시는 부수대로 보내드립니다
- 주간박해뉴스/기도제목을 신청하세요! 매주 개인카톡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월'을 검색/추가해주세요.

 다양한 박해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T 02-596-3171 F 02-594-3171 M 010-7548-3171
E odsk@opendoors.or.kr H www.opendoors.or.kr

“불지여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 요한계시록 3:8 -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10월 1일(토) / 북한 NORTH KOREA

국제인권위원회는 북한 수용소 내에서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탄압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 특히 기독교인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감되어 의도적인 신체적, 정신적 박해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 모임과 같은 종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본권박탈은 물론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용소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2일(일) / 북한 NORTH KOREA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타 집단 수용자들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수감되며, 더욱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신분이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경우 심문 기간이 더욱 길며 극심한 고문을 통해 다른 기독교인들의 신원을 실토하도록 강압을 당합니다. 북한은 기독교의 확산이 정권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보고, 새로운 '반동사상법'을 제정하여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가정교회를 폐쇄하는 등 폭력적 박해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극심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10월 3일(월) / 중국 CHINA

제이슨(Jason,가명)은 중국 내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들에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중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선교사가 되어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 신앙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의 압력을 받고 구금되어 심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어떠한 종교활동을 주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전도활동을 은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이슨과 아내의 용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부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4일(화) / 네팔 NEPAL

네팔 기독교인 사밀라(Samila,가명)자매는 남편과 아들을 키우며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박해로 인해 사밀라 가정은 집을 나와 어렵게 거처를 마련하여 살고 있지만 노동일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 아픈 아들까지 양육하며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앙때문에 가족의 박해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밀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픈 아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5일(수) / 네팔 NEPAL

수만 반다리(Suman Bhandari,가명) 형제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때문에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난채 살고 있습니다.

수원원라고는 조그만 가게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전부입니다. 니르마야(Nirmaya,가명)자매 또한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반다리 형제 가정과 니르마야 자매 가정과 같은 네팔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6일(목) / 나이지리아 NIGERIA

나이지리아의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보코하람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의 공격으로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납치되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280여명의 여학생들이 납치되었고, 아직도 100여명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픈도어가 진행하고 있는 트라우마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납치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7일(금) / 미얀마 MYANMAR

미얀마 정부는 장기화되는 내전 속에 학교 교육을 다시 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전쟁이 진행중인 많은 지역들의 학생들은 여전히 어떠한 교육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파트너 민니앙(Min Niang,가명)은 오픈도어가 진행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학생 크리스천들이 어려움과 적대감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고 전합니다. 청년/학생/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8일(토) / 미얀마 MYANMAR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청년들은 모조리 체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민주화 저항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사람들이 안전과 생존을 위해 떠나가면서 지역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윈틴(Win Tin,가명)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교회는 더 약해질 것이며, 청년과 청소년이 모일 수 없는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 않도록, 청년/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9일(일) / 인도 INDIA

인도 사회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정서와 박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 정부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며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사회 정서적으로 반 기독교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들이 폐쇄되고 공격받는 기독교인들

이 급증하는 등 기독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주도의 반 기독교 캠페인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강압적인 포교활동을 했다는 모함으로 박해를 받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크리스천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10일(월) / 인도 INDIA

힌두교 극단주의자들과 힌두 부족 지도자들은 부족민 특별 보호를 위한 계획에서 기독교인 부족민들을 제외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심 조성을 위한 모임과 대중 연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10월 한달 동안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구호/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교육과 구호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1일(화) / 시리아 SYRIA

코로나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시리아-이라크에 대한 소식은 매스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라크의 크리스천들과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여전히 더 많은 도움과 사역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마스쿠스에서 희망센터를 운영하는 에드워드(Edward)목사는 “시리아-이라크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며 희망이 절실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깨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2일(수) / 이라크 IRAQ

네다(Neda,가명)자매와 그녀의 두 딸은 2014년 IS침공 후, 이라크 모술(Mosul,니느웨)에서 쫓겨났습니다. IS는 공식적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안전하지 못하기때문에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재 에르빌(Erbil)지역에 일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듯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3일(목) / 이라크 IRAQ

이라크 희망센터에서 진행하는 트라우마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여명의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삼(Wisam,가명)은 “하나의 훈련이나 프로그램으로 트라우마의 상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 속에 의식을 심고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고 치료하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몇 세대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심고 전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14일(금) / 시리아 SYRIA

시리아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하루 중 특정된 짧은 시간 동안만 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리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보여주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도어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센터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스터디 존'을 만들어 학생들이 노트북과 스텐드 등을 비롯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센터가 시리아 전역의 교회에 세워져 시리아를 다시 일으키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5일(토) / 레바논 LEANON

레바논의 경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레바논 국민들의 국가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은행에 저축해둔 돈들은 한순간에 증발했고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교회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레바논 지역 사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레바논 국가 경제와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6일(일) / 멕시코 MEXICO

멕시코는 국가부패지수가 전세계 180개국 중 역대 최악인 124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패가 극심합니다. 부패 정도가 높은 영역 또한 정부와 공공 에너지 분야로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폭력과 마약 밀매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총기폭력과 마약유통은 국가 부패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 또한 극심하여 부패문제를 폭로한 기자 12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당당히 실천하며,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7일(월)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한 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공헌했던 여성들의 자유와 인권,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평등한 보장의 약속은 현재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 집권과 동시에 여성들은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모두 잃었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에서 여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회에 공헌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인격적 존재이자, 동등한 존재로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18일(화) / 멕시코 MEXICO

연간 약 4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통과했다고 멕시코 시민단체들의 조사 결과는 말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민한 사람들은 인신매매, 강도, 약탈, 권력남용, 납치, 살인 등의 범죄에 노출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존을 위해 타국의 국경을 넘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멕시코 교회가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멕시코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주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